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ACN 특별보고서

ACN · 가톨릭평화신문 공동 기획

전화: 02-796-6440 팩스: 02-796-6439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예금주명: (사)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

파/키/스/탄 자비의 영웅들

파키스탄 교회,
차별 속에서 신앙을 증거하다

빈민촌 ‘조셉 콜로니’와
‘다모마 푸르마 추기안’에서

신성모독법이라는
날카로운 칼날 아래

AKASH BASHIR

순교자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을 만나며

세상을 바꾸려는 한 주교



“파키스탄 교회는 가난하지만, 신앙적으로 부유합니다.”

파키스탄 교회, 차별 속에서 신앙을 증거하다



요하네스 클라우자 ACN 한국지부장이 가톨릭평화신문 김원철 기자와 함께
차별과 폭력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증언하는 파키스탄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파키스탄의 인구는 약 2억 명으로, 세계에서 6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중 96%는 이슬람교도이며 대부분 수니파에 속합니다. 즉 나머지 4%의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믿고 있고 여기에는 힌두교, 그리스도교, 시크교, 조로아스터교, 바하이 신앙 등이 포함됩니다.

인도에서 독립 투쟁이 벌어지던 시기에 파키스탄의 건국자인 무함마드 알리 진나는 1947년 인도계 이슬람교도를 위한 독립 국가를 세웠습니다. 진나 초대 총독은 신정(神政) 국가를 세우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비(非) 무슬림도 파키스탄인이며 다른 무슬림 시민들과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파키스탄이 종교적 원리 아래 통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피력했고, 1947년의 정책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파키스탄 내에서 여러분의 성전과 사원과 다른 예배처에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교나 계급이나 신념이라도 가질 수 있고, 이는 국정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호르에서 물탄을 거쳐가는 여정 중에 ACN 방문단은 오늘날 파키스탄의 현실이 진나 총독의 비전과 무척 다르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신권 정치가 힘을 발휘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이등 시민으로 취급당하고 사회의 최하층으로 살아가며 겨우 생활을 유지해 가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사회경제적으로도 마땅한 위치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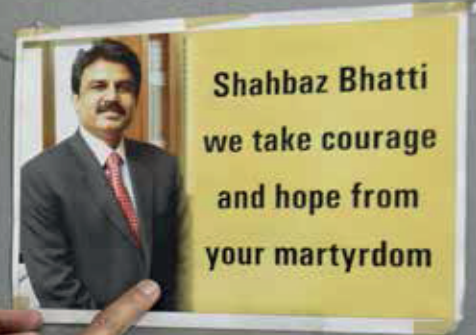
지난 수십 년간 파키스탄의 소수 종교자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종교적 긴장감이 점차 고조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테러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테러범들은 2015년 그리스도인 밀집 지역인 요한나바드에 있는 교회 두 곳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경비 봉사 중이었던 20세 청년 ‘아카시 바시르’는 신자 1,400명이 모여 있는 성전 안으로 자살 폭탄 테러범이 들어가고 하자 자신의 몸으로 그를 막았습니다. 방문단은 그의 무덤과 가족들을 찾아가 조문하고, 아카시와 함께 성당을 지켰던 두 청년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또 2016년 부활 대축일에 라호르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을 때 즉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던 세바스찬 쇼우 대주교(라호르대교구장)를 만났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 세력인 탈레반이 부활절을 축하하기 위해 어린이 공원에 모인 신자들을 타깃으로 폭탄을 터트려 70명이 사망하고 34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쇼우 대주교는 유가족들과 함께 슬퍼하는 한편, 이 모든 악행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비의 영웅들”이 되도록 격려했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처럼 가해자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말합니다.

ACN은 현재 파키스탄 가톨릭교회의 보안 시설 확충, 법률 상담, 신성모독법 피해자 지원, 신학교 및 교리교육 시설과 사목관 건설, 재정적 원조 등 다양한 사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고통받는 교회 돕기’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신성모독법이라는 날카로운 칼날 아래



소우 대주교의 사무실 사물함에 붙어 있는 바티 장관의 사진과 글귀
“우리는 당신의 순교를 통해 용기와 희망을 얻습니다”

반(反) 종교 범죄와 관련된 법은 파키스탄 건국 이전 영국 식민 정부 시기부터 이 땅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지 아울 하크가 이끄는 군사 정부가 국가를 이슬람화(化) 하면서 몇 개의 조항을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파키스탄 형법에는 ‘어떤 종교를 모독하기 위하여 예배소를 해하는 행위’(제295조)를 금하고 있으며, 최고 징역 2년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종교나 종교적 신념을 모욕하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제205A조)은 최고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 아울 하크 정권은 1982년 파키스탄 형법에 신성모독법 제295B조를 추가하여 특히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훼손하는 죄에 대해서는 최대 종신형을 내리는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1986년에 추가된 제295C조는 더 엄격합니다.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이름을 구두나 서면으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모독하거나 음해하는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합니다.

1980년대 말부터 약 1,400명의 파키스탄인들이 신성모독법에 따라 고발되었습니다. 단지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파키스탄의 모든 국민은 무슬림 강경파의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서기도 전에 살해당했습니다. 대개 양심을 품은 이웃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거나 사적인 이유로 경쟁자를 제거하는 데 신성모독법이 악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슬림과 비무슬림은 신성모독법이라는 날카로운 칼날 아래 살아갑니다. 신성모독법의 피해자는 대부분 무슬림이지만, 이 법의 칼끝은 비무슬림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소수 종교자들을 박해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신성모독법을 개정하거나 바꾸자는 주장은 항상 극심한 저항을 받아왔습니다. 피해자를 옹호하고 신성모독법의 병폐를 폭로한 유명 인사들은 극단주의자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소수민족 부 장관을 지낸 샤바즈 바티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는 신성모독법 개정을 위해 힘썼고 상원 의원 87명 중 46명의 동의를 얻어냈으나, 의회 정원 2/3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바티 장관은 2010년 신성모독법의 첫번째 여성 피해자가 되어 사형 선고를 받은 ‘아시아 비비’의 구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과 5명의 어린 자녀들을 두고 사형수로 복역 중

입니다. 바티 장관은 2011년 3월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살해되었습니다. 그는 출근길 차 안에서 괴한의 총에 맞고 사망했지만,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탈레반과 연계된 한 단체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을 뿐입니다.

이 비극이 일어나기 두 달 전에는 편자브 주(州)의 살만 타시르 주지사가 자신의 경호원으로부터 암살당하기도 했습니다. 타시르 주지사는 진보주의 성향의 무슬림 정치인으로, 생전에 신성모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시아 비비의 사면을 주장했습니다. 주지사를 암살한 범인은 2016년에 처형되었는데, 많은 무슬림들은 오히려 그를 순교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이슬람 성직자와 학자들이 무함마드 예언자를 모독한 자를 처단하는 사람은 바로 하늘로 올라간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라호르대성당에서 만난 바티 장관의 누이는 “동생의 안식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빈민촌 ‘조셉 콜로니’와 ‘다모마 푸르마 추기안’에서

방문단은 공장과 폐품 처리장으로 둘러싸이고 모래로 뒤덮인 한 빈민촌을 찾아갔습니다. 수년간 ACN과 협력해 온 조셉 샤자드 신부가 ‘조셉 콜로니’라고 쓰인 큰 갈색 간판과 대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치안이 불안한 동네에서 샤자드 신부가 동행하여 안내해 준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빈민촌 조셉 콜로니는 라호르의 한 버스 터미널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리 아다 터미널은 펀자브 주의 중심 도시인 라호르와 파키스탄의 다른 지역을 잇는 곳으로, 언제나 물건과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조셉 콜로니 주민들의 삶은 가난하지만 소박한데, 이 지역이 교통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에 욕심을 품은 사람들로 인해 많은 충돌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방화로 검게 그을린 벽 앞에서 얘기를 나누는 샤자드 신부와 자한제브 신부(사진 앞쪽 두 명)

2013년 봄 조셉 콜로니의 그리스도인이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는 거짓 고발 때문에 7천 명에 이르는 성난 무슬림 군중이 265채의 그리스도인 주택과 18개의 상점과 교회 2곳을 불태웠습니다. 방문단은 성경 속 이야기를 담은 벽화가 잿더미로 변해버린 모습과 불에 검게 그을린 성당 외벽 등지에서 사건의 참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 목격자는 “**무슬림들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저지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쫓아내고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의 집을 빼앗기 위해 적당한 핑계 거리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그리스도인 청소원 사완 마시(26세)가 어느날 친구인 무슬림 이발사 임란 샤히드와 술을 마신 채 돈과 땅 때문에 크게 다툰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샤히드는 이맘(무슬림 지도자)과 상담을 가진 뒤 마시를 신성모독죄로 고발했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샤히드가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마시를 고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무고하다며 마시를 풀어줬으나 이미 선동된 군중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찰들이 방망이와 총으로 공격당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사완 마시가 체포되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전에 경고를 받고 집을 떠났기 때문에, 다음날 폭동이 일어났을 때 목숨을 잃은 신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백 명의 가족들이 얼마 되지 않는 재산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많은 이들이 집을 팔고 조셉 콜로니를 떠났습니다.



그리스도인 빈민촌 조셉 콜로니의 아이들

한편, 방문단은 조셉 콜로니에서 수십 명의 밝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조셉 콜로니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은 100명 중 20명에 불과합니다. 대다수는 거리에서 돈을 벌거나 부모와 함께 밭에 나가 일합니다. 많은 지주들이 그렇게 하도록 부모에게 압력을 넣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공부시킬 여력이 없습니다. 정당한 대우를 받는 직업을 가진 부모들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아이들을 제대로 먹여 살릴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파키스탄의 시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한 행인이 항의했습니다. “우리는 파키스탄에서 환영받지도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무슬림들과 같은 겹으로 물을 마시지도 못합니다.” 일부 무슬림들은 그리스도인이 사용한 물컵을 부수거나 물어내라고 강요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밖에 나오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슬림들에게 거부당하며 미움받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조셉 콜로니의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그 크기가 가톨릭 신자 100가구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조셉 콜로니의 가톨릭 공동체에게는 더 큰 성당이 필요합니다. 만일의 경우에는 근처 개신교 교회와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방문단은 이후 조셉 콜로니에서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빈민촌 ‘다모마 푸르마 추기안’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조셉 콜로니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에 땅을 사서 새 터전을 일구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70가구의 가톨릭 신자들이 6개 동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이곳에는 성전이 없지만, 다행히 ACN의 지원으로 토지를 마련하여 건축 중입니다. 방문단은 기초 공사가 마무리된 지붕 없는 성당에서 교리교사와 신자들과 함께 작은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새 성전터는 꽤 넓기 때문에 다모마 푸르마 추기안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이곳에 초등학교를 지은 다음 먼 미래에 고등학교까지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공사는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곳에 학교가 생긴다면, 라호르 외곽의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첫 학교가 됩니다. 자녀를 도시의 학교로 보낼 여력이 없는 부모들은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둥과 반쯤 쌓은 벽만 있는 추기안 마을의 성당

파키스탄의 유일한 가톨릭 방송국

단 7명의 직원으로 방송국을 운영하고, 매일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고, 24시간 방송을 송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파키스탄 가톨릭 TV의 설립자인 모리스 잘랄 신부(카푸친회)는 바로 땀을 흘리는 노력과 장기적인 비전 그리고 300명의 자원봉사자들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파키스탄 가톨릭 TV의 제작부 직원들은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촬영 기사는 영상을 편집할 줄 알아야 하며 프로그램 제작의 전 과정에 투입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수많은 봉사자들의 손길로 완성됩니다. 모리스 신부는 300명의 젊은 봉사자들에게 커피를 대접하고 교통비를 지급하거나 이따금씩 학비를 보조합니다.

또한, 모리스 신부는 방송 내용이 정치적 이슈나 이슬람과 같은 민감한 주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가톨릭 TV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집에 불을 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화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리스 신부는 사회적 측면에서 인간의 기본권과

소수민의 권리를 방송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정치적 이슈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대화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파키스탄 가톨릭 TV 방송국의 전파력은 아주 약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선망으로는 라호르의 성 프란치스코 본당 주변 10km 이내에서만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시청자가 8천 가구에 불과합니다. 모리스 신부가 위성 방송을 꿈꾸고 있는 이유입니다. 파키스탄에는 총 112개의 위성 채널이 있는데, 그중 24개가 이슬람 채널입니다. 9개는 개신교 채널로, 오순절 교회가 운영하며 한국과 미국 신자들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이슬람 율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의무 교육입니다.” 성경공부는 개인끼리 혹은 본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파키스탄 같은 무슬림 국가에서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TV입니다. “파키스탄 사람들이 끼니를 저를 수 있어도,

텔레비전 없이는 못 삽니다. 이걸 분명합니다.” 개신교는 이 사실을 빨리 깨닫고 일찍감치 방송에 투자해 온 것입니다.

직원들의 노력과 봉사자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가톨릭 TV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모리스 신부에 따르면, 가톨릭 교회가 재빨리 움직이지 못한 바람에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대안을 찾지 못하고 개신교 채널을 보다 더 쉽게 혼란에 빠진다고 합니다. 신자들은 보편적이고 범세계적인 가톨릭교회가 개신교는 9개나 있는 위성 채널을 어떻게 하나도 갖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묻습니다. 모리스 신부가 근심 어린 부모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모두 힘을 합쳐 파키스탄에 가톨릭 위성 채널을 만듭시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며,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ACN은 설립 과정부터 파키스탄의 가톨릭 TV를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함께할 것입니다.

순교자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을 만나며

(사진 좌측부터) 아카시 바시르의 두 친구 유수프, 스칸다르와 아들의 사진과 이야기가 실린 잡지를 들고 있는 바시르의 부모

방문단은 라호르의 그리스도인 밀집 지역인 요한나바드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휴먼 프렌즈 단체’(HFO) 앞에서 사지드 크리스토퍼를 만났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유복한 가정에서 많은 기회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젊은 운동가입니다. 그는 안락한 삶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 덜 가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과 일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성모독법과 테러 공격으로부터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주님께서 주신 талан트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요한나바드에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크리스토퍼는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돕습니다. 그는 기부를 하며 성탄절과 부활절에는 미망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똑똑하지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또



HFO 대표 사지드 크리스토퍼

한 그는 요한나바드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크리스토퍼는 파키스탄 총리부터 여러 종교 지도자

와 성직자 등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사들을 잘 알고 있는데, 자신이 태어난 고향 마을이 건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크리스토퍼의 사무실에서 아카시 바시르의 부모와 그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바시르는 순교자입니다. 그는 생전에 청년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성 요한 본당의 경비 봉사를 했습니다. **어느날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 단체인 탈레반의 자살 폭탄 테러범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바시르는 자신의 목숨을 받쳐 신자 1,400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사건 당일 바시르의 친구인 유수프와 스칸다르도 그와 함께 성당을 지키다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바시르의 가족과 함께 모여 자신의 친구이자 순교자인 바시르를 추억하며 2015년 3월, 잊지 못할 그날의 기억을 방문단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처럼 끔찍한 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바시르의 가족과 친구들은 이런 비극이 벌어



몸을 던져 폭탄 테러를 막은 ‘성 요한 성당의 의인’ 아카시 바시르의 묘

진 성당으로 어떻게 주일마다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바시르의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다른 누가 아닌 예수님께 우리 아들을 보낼 수 있어 기쁩니다. 아들의 죽음이 슬프기도 하지만 그보다 자랑스러운 마음이 더 큼니다. 아카시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천국에 있다고 믿으며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바시르의 어머니는 아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카시는 우리 아들이고 늘 기억 속에 함께할 겁니다. 저에게는 믿음이 있지만, 아카시를 잊을 수



ACN의 지원으로 설치된 성 요한 성당의 새 대문과 성당 맞은편에 세워진 고(故) 아카시 바시르의 추모비

는 없습니다. 내 아이가 한 모든 행동을 기억합니다. 저는 여전히 슬픔입니다. 하지만 기쁨이 슬픔보다 더 큼니다.” 이어서 어머니는 방문단에게 감명적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아십니까? 꿈에서 저는 무덤 속에 있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아카시에게 ‘아들아, 나오거라.’라며 부르니 아카시가 나왔습니다. 먼지가 묻은 아들의 옷을 털어 주며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으니 아카시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어요.’라고 답하더군요. 그 때 꿈에서 깼습니다.”**

방문단은 바시르의 어머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믿음 안에서 위로와 평화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더 좋은 곳으로 갔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의 가족은 가난하며 슬프지만 믿음 안에서 그 누구보다 강합니다.

바시르와 함께 성당을 지켰던 친구, 스칸다르가 테러범이 침입했을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살 폭탄 테러범은 성 요한 성당에 도착하자마자 대문 앞에서 경비를 서던 유수프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유수프는 총상을 입은 채 마당과 성전 안에 있는 바시르와 스칸다르에게 대문을

닫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스칸다르가 황급히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테러범이 밀고 들어오는 힘이 더 셉습니다. 그때 아카시가 테러범을 두 팔로 끌어안고 뒤에서 그를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테러범이 입고 있던 조끼의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테러범을 붙잡고 있던 바시르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칸다르는 폭발로 인해 한쪽 귀와 다리를 다치고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지만 신자들이 무사하기 때문에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스칸다르는 자신이 부상을 입었을 때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모두 스칸다르가 살아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랑 유수프는 회복하자마자 경비 봉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충실하게, 자발적으로 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신자들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유수프는 정말로 두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물론 두렵습니다. 저도 인간이니까요. 만약 테러범이 다시 들이닥치면, 이번에는 제 몸이 제 대로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약하고 두렵습니다.”** 방문단이 이후 성 요한 성당 앞을 차량으로 다시 지나

했을 때 차창 너머로 유수프와 마주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은색 경비복을 갖추어 입고 다시 총을 든 채 한한 미소와 함께 손을 흔들며 주었습니다.



다시 일어나 경비 봉사를 시작한 유수프

한편 라호르에는 200개의 교회가 있는데 경찰 병력만으로는 이 모든 곳을 순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각 교회마다 경비 인력을 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신자들도 경찰을 늘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요한나바드에 있는 성공회 성당이 폭탄 공격을 당했을 당시 건너편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은 크리켓 경기를 시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파키스탄의 많은 젊은이들은 순교한 바시르와 그의 친구 유수프와 스칸다르로부터 용기를 얻어 경비 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바로 바시르의 동생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한 주교

“파키스탄 교회는 가난하지만, 신앙적으로 부유합니다.”라고 라호르대교구장 세바스탄 쇼우 대주교는 말했습니다. 라호르는 2015년 성당 두 곳이 폭탄 테러를 당하고, 2016년에는 부활 대축일 테러가 발생하여 큰 아픔을 겪은 교구입니다. 파키스탄의 가톨릭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체면을 나누기 위해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견뎌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하신 얼굴을 드러내도록 태어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고 받아들이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쇼우 대주교에 의하면, 파키스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자비의 영웅들’입니다.

2016년 부활 대축일 굴산에이크발 공원에서 폭탄이 터져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쇼우 대주교는 즉시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대주교에게 문병하고 싶은 신자들의 목록을 적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쇼우 대주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이들을 만나러 왔

다”며 거부했습니다. “피해자는 그냥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해자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쇼우 대주교를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쇼우 대주교는 파키스탄의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긴장이 과열된다고 느낄 때마다 대주교는 이슬람 최고 지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보다 큰 사태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현 시대는 너무 많은 오해가 쌓여 있기 때문에 종교 간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쇼우 대주교는 역설했습니다.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마태 5,9)이라는 복음 말씀을 떠올리며 쇼우 대주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을 한 식탁에 모여 앉게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믿음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 지구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고,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방문단은 쇼우 대주교와 함께 라호르의 모라나 압둘 카비르 아자드 이맘과 두 명의 시크교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쇼우 대주교는 그들과 함께 라호르 대모스크와 시크교의 구르다와라 데라 사히브 사원을 방문하고, 대모스크 앞에서 올리브 나무 두 그루를 심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성경과 코란에서 평화를 상징합니다. **“올리브 나무를 심을 때 우리는 땅에 나무를 심는 것과 동시에 마음에도 평화를 심게 됩니다. 우리 마음과 정신에서 평화의 올리브 나무를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교관 한 구석에는 쇼우 대주교가 받은 상과 트로피가 진열된 책장이 있는데, 그중 ‘2016년 넬슨 만델라 인권상’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정신 나간 생각을 하는 사람은 실제로도 세상을 바꿀 것이다.” 쇼우 대주교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다 함께 올리브 나무를 심고 바치는 평화의 기도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 혹은 비슷한 성격의 사업과 ACN의 수행 가능한 사목 활동에 사용됩니다.

